

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자료			
일 시	2012.10.18	정무위원회	국회의원 노 회 찬
소 관 기 관	한국거래소		
담당자	전해웅(784-6070)		

72명의 외국인투자자를 위해 부산데이터센터 1년에 65억 지출

- 12년 6월부터 가동중인 부산파생상품접속장비를 통한 거래 97%가 외국인매매로 드러나

한국거래소는 2012년 6월 4일부터 부산라우터를 포함한 데이터센터를 가동하여 국내 선물거래의 주문체결이 부산에서도 가능하게 하였다. 이전에는 서울라우터가 유일했지만 6월 이후로는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61개 참여회원사들 중 19개사가 부산라우터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호가 주문량 기준으로 부산라우터는 전체 거래의 40%를 담당하고 있다.

노회찬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서 거래하는 외국인은 하루 평균 72명으로 2012년 9월 이후 부산라우터를 통해 접수되는 호가 주문의 97%가 이들 소수의 외국인으로부터 접수되며 이들은 하루에 2천6백만 건의 계약을 주문해 전체 파생상품시장의 39.4%를 차지하고 있다.

노회찬의원이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라우터를